

대산단지, 석유화학 수출 “숨통”

대산수산청, 2만톤급 선박 접안 1선식 축조 ... 화물 처리능력 57만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2년 시작된 충남 서산시 대산항 국가부두 건설 1단계 1차 사업이 12월1일 마무리 된다고 11월24일 발표했다.

대산수산청은 4년간 1246억원을 투입해 대산항 외곽에 방파제를 쌓고 항만운영에 필요한 관리부두 250m와 2만톤급 선박이 상시 접안할 수 있는 시설 1선식을 축조했다.

1차 사업이 완료되면 대산항은 컨테이너를 포함해 연간 57만200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출 등을 위해 인천항이나 평택·당진항을 이용해온 대산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기업들이 곧바로 대산항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연간 약 200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대산수산청은 2007년 상반기를 목표로 대산항에서 중국을 비롯해 일본과 동남아 등으로 정기 운항할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을 추진중이다.

대산수산청 관계자는 “서해 중부권의 거점 종합항만 개발이라는 기치 아래 첫 삽을 뜬 지 4년만에 충남 최초의 국가부두 준공이라는 대역사가 일단락된다”며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충남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충남 서부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산수산청은 12월말부터는 컨테이너 부두 1선식을 포함해 모두 3선식을 추가로 건설하는 1단계 2차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4>